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⑤2 - 영평리 선정비(永平里 善政碑)

歷代 郡守 현감(縣監)의 업적을 기리기위한 功德碑



최 중 규
포천문화유적 회장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39호
· 소재지 : 포천시 영중면 영평리
· 규모 : 보호구역 2.5m×4m
· 비 고 : 선정비 3기
본 비군은 永平初等學校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후기 영평군에 부임해서 善政을 베풀었던 歷代 郡守 현감(縣監)의 업적을 기리기위한 功德碑로서 이 고장의 地方史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어주고 있다.
(1)城主李公知白 清簡善政碑 己丑 八月 日立
(성주이공지백 청간선정비) 辛丑 九月 日立
(2)行郡守玄公興澤 永世不忘 碑(행군수현공흥택 영세불망비) 己丑 八月 日立
(3)觀察使金公宏集 永世不忘 碑(관찰사김공홍집 영세불망비) 甲申 四月 日

세익스피어 에세이

세월은 무상한데 이 인생을 어찌할까



박 정 구
대진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새해가 손짓을 하고 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순간 너무 많은 날들을 어찌 채워야할까 걱정했더니 지금은 아무 것도 세월만 보냈구나하는 자책 감에 시달린다. 짧은 청년들은 아직 이루지 못한 꿈과 욕망으로 시달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달음질을 친다. 이런 저런 일에 도전하고는 시들해져서 가지 못한 갈림길의 다른 코스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기도 한다. 실력 무었을 성취하고 절정에 이른다 해도 그 즐거움은 찰나에 불과하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의 최고점의 순간을 영구화하려고 안달하지만 시간은 그 욕망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딜레마인 것이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첫 눈도 내렸으니, 여름내 무성하던 나뭇잎들은 하나 둘 가지에 달랑거리거나 아예 마른 가지만이 바람에 떨고 있다. 나무조차도 세월의 냉엄한 원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니 세상의 어느 것 하나 영원한 절정을 자랑하지 못한다. 며칠 전에 내렸던 할바늘이 천지를 하얗게 덮었던 밤은 우리를 그 순결한 빛에 가슴을 떨게 하여 잠 못 이루게 하였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몇 시간도 못 되어 햇볕에 녹아버리고 사라지고 만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란 모두 순간의 미화이란 듯이 걸려있다. 아름다운 여인들은 시간의 역사에 저항하면서 그들의 외양미를 유지하려고 투쟁한다. 그러나 이 저항은 세월의 악착같은 침투자전에 속수무책이다. 그녀들은 값비싼 화장품으로 저항하지만 언뜻 목덜미에 주름이 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고 절망하는 것이다. 결국 성장하는 모든 만물들은 절정에 이르기까지 위를 향해 뻗어가지만 최고점에 이르는 순간 하향곡선을 그을 수 밖에 없음을 세익스피어의 소네트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성장하는 것은 뭐나 순간적으로만 완성에 도달하고, 그리고 이 사비의 거대한 무대는 연극만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연극은 별의 은밀한 영향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소. 그리고 인간은 식물같이 번식하여, 바로 같은 하늘로부터 찬양 받고 혹은 힐책받아 가면서, 짧은 활약을 자랑하지만, 절정에 도달해서는 쇠퇴하고, 그 당당한 상태로 잊혀지게 되고 마는 것 같소.(세익스피어 소네트 15)

“ 세월은 분명 만물에게 규정된 필멸성의 천명을 무시하고 영원한 신성에 도전하는 인간들의 무모성에 대해서 가차없이 철퇴를 가한다. ”

세익스피어는 이러한 인생의 비극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파괴되어 가는 아름다운 얼굴을 보면서 한숨과 눈물로 한탄하는 여인들이 어디 하나 돌이켰는가. 그는 심지어 청춘에 대해 아무런 연민을 보이지 않는 세월의 잔인함을 탓하기조차 한다. 세월은 분명 만물에게 규정된 필멸성의 천명을 무시하고 영원한 신성에 도전하는 인간들의 무모성에 대해서 가차없이 철퇴를 가한다. 하늘 아래 존재하는 생명체에게 예외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파멸을 앞삼는 세월에 대해 탈출구는 없는 것인가. 세익스피어는 절망적인 젊음의 무상함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무상에 대한 생각은 나의 눈에게 더할 나위 없이 젊은 그대의 모습을 어른거리게 하오. 거기에서는 파괴적인 시간과 폐멸이 공모하여 그대의 젊음의 날을 더러운 밤으로 바꿔 놓으려고 꾀하고 있소.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에 나는 시간과 싸워서 그대의 폐멸에 대비하여 그대에게 새순을 꼭꼭 하는 거요.(세익스피어 소네트 15)

세익스피어가 주목하려고 하는 '새순'은 현상을 뛰어넘는 희망이나 사랑할 수도 있고 종교적 믿음일 수 있다. 이 새순이아말로 현상적인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세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현상적 아름다움이 안으로 파고들어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거듭나야 한다.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미가 아니라 타인과 이웃을 포용하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연말에 외롭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눈을 돌려보자. 진정한 아름다움은 여인의 얼굴에만 머물러있지 않는다. 그 아름다움이 어려운 이웃이나 장애자를 도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들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손을 통해 더욱 성스럽게 피어날 수 있다. 새해에는 이러한 심화된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꽃피워보자. 이런 정신적 성숙은 세월이 만들어놓은 주름살 정도에 한숨을 짓기보다 자신의 손이 이루어 가는 공동체적 사랑의 실천에 미소를 지어 보인다.

교육에세이 25

배우며 사는 생활



조 대 형
평남고등학교 교장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배우게 됩니다. 배우는 일은 가장 생산적이고 창조적이며 희망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배우는 일은 잠시라도 게을리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배우는 일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의 최후의 날까지 배우야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다음의 '세 가지 소리가 들리는 집은 흥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베 짜는 소리가 들려야 하고, 다음은 아이 우는소리가 들려야 하고, 마치 막으로는 글 읽는 소리가 들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베 짜는 소리는 생산의 의미이요, 근면하게 살아 움직임을 뜻하고, 아이 우는소리는 그 집안이 융성함을 상징함이고, 글 읽는 소리가 퍼지는 가정은 희망이 있고 배움이 있는 집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배우며 살아야 하고, 나쁜 일이 아니면 무엇이든지 배우야 합니다. '셋이 걸어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공자의 말씀처럼 누구에게나 장점과 배울 것이 있는 법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고, 사회의 패배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알기 위해 배우고, 깨닫기 위해 배우며, 행하고 실천하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만을 머리에 넣는 배움에는 행동의 변화가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 올바르게 배운 사람의 자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과 같이 배울수록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겠고, 그것이 눈에 보일 때 배우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활을 바닷바람 방향대로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서는 깊은 생각과 소신 있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생활하면서 부딪치는 모든 사물을 독창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생각하는 창의성과 그것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행동능력이 함께 길러져야 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의 청소년기에 건전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여러분의 지력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데 거칠 것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전한 가치관은 아무런 노력 없이,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 부단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생각은 행동과 짝을 이루어

야 합니다. 생각하고 실천하는 생활은 사고력, 추리력, 판단력을 높여 주어 창조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생각하며 생활하려는 노력만큼 창의력도 신장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권 속의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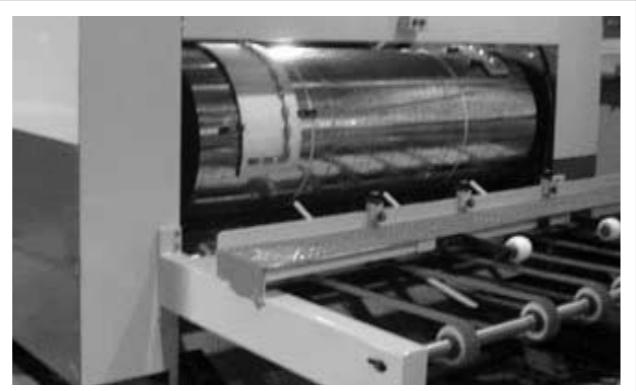
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인생을 좌우 합니다. 평생을 배우야 하지만 특히, 고등학교 시절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 시기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얼마만큼 노력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미래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인생의 최대 목표로 생각했으며, 공부야 미래를 위한 가장 큰 준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는 학원이나 도서관에서 볼 수 없는 무언의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있습니다.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과, 선배와 동급생으로 이루어진 인연의 학생활동 즉, 수학여행, 체육대회, 학생수련, 소풍 등을 통한 문화탐구와 체험활동에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일생동안 지혜의 샘으로 좋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

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서 천명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행운'이라는 기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라도 바꿀 수 없는 한 번 밖에 없는 자기 인생을 귀한 삶이 되도록 뜻을 높게 갖고 노력해야겠습니다. 미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우리의 삶을 계속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추구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번 회를 끝으로 「교육에세이」를 맺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글들은 선현들의 명언과 교육계의 선배님들의 교훈을 중심으로, 나름대로의 교육적 체험을 정리하여 올린 줄고입니다. 그동안 제 글을 읽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귀한 지면을 할애해 주신 [포천신문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제 글이 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여러분의 가정에 무한한 평안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골판지 포장 BOX 생산전문



생산품목
내수용, 수출용, 식품용, 공업용, 농산물, 가구 등

박스종류
골판지박스, 톱슨박스, 컬러박스, 종이박스



은창수출포장(주)
대표이사 이희선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2리 645-3
Tel. 031)534-5753 Fax. 031) 533-5759
www.eunchang.co.kr

